

여수, 차별화된 소통 '우리동네 이야기' 호응

정기명 시장, 83편 시민 목소리 담아...26회 분량 제작 '시민과의 대화' 성공개최 일조...예산 8000만원 절감도

정기명 여수시장이 최근 마무리된 '2025 시민과의 열린 대화'에서 차별화된 소통 코너인 '우리동네 이야기'를 선보이며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우리동네 이야기'는 시민과의 대화 초반부에 소개되는 코너로, 시정에 대한 건의나 동네 자랑거리, 시에 바라는 점 등 해당 지역 시민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가 열리는 한 달여 기간 동안 총 83편의 시민 목소리를 영상에 담았으며, 26회 분량을 제작했다. 특히 섭외와 인터뷰, 편집 등 모든 과정

을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 약 8000만원 (회당 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했다. 해당 코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새로워 신선하고 재미있었다', '엄숙한 분위기를 환기 시켰다', '우리 동네 영상이어서 더욱 몰입했다' 등 호평일색이다.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매번 행사 초반에 명랑한 분위기로 반전시키며 편안한 진행을 유도. 이번 행사의 성공개최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공주식 여수시 시민소통담당관은 "해당 코너는 대화를 좀 더 편안하고 격의 없



여수시는 최근 한달여간 열린 '2025 시민과의 열린 대화'에서 차별화된 소통 코너인 '우리동네 이야기'를 선보였다.



는 진솔한 분위기로 이끌고자 올해 처음 시도했다"며 "출고 뻣뻣한 일정 속에 돌발상황도 많았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히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기명 시장은 "흔란스러운 정국과 바

른 일상에도 불구하고 대화에 참여해 주신 많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편에 서서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의 '2025 시민과의 열린 대

화'는 지난달 5일 주삼동으로 시작해 지난 10일 화정면까지 27개의 읍면동 가운데 삼산면을 제외한 26곳에서 열렸다. '시민과의 대화'에는 3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3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LOCAL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화순 난 명품 박람회 내일 개막 하니움스포츠허브센터서 춘란 전시

화순군은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제6회 화순 난 명품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화순군이 주최하고 화순 난연합회·(사)한국난문화협회·(사)한국난보존협회 등 국내 주요 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1000여점의 한국 춘란을 비롯한 다양한 품종의 난이 전시될 예정이다.

박람회 개막식은 15일 오후 2시 개최되며, 구북규 화순군수를 비롯해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우수 출품작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화순군수상과 전남도지사상이 수여되고, 특별대상·최우수상·금상·은상·동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시상이 이뤄진다.

화순 난 명품 박람회는 국내 난 애호가들을 주축으로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일반 방문객들도 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행사장에서는 단순 전시뿐만 아니라, 난을 직접 구매하거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특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주관의 난 경매가 15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며, 희귀 난을 합리적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행사장 내에는 화순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부스와 난 관련 자재 판매 부스도 마련. 방문객이 다양한 제품을 둘러보고 직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틀간 진행되는 박람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개방되며, 첫날인 15일에는 전시 관람객들 대상으로 춘란 증정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6일에는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이 개최된다.

이후범 한국난산업화단지추진TF단장은 "화순군이 난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 관광·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백운산 산림박물관, 관속식물 574종 전시

광양시, 9000만원 투입...산림자원조사 마무리

광양시는 최근 개관한 백운산 산림박물관에 관속식물 574종 1056점의 식물 표본을 보관·전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9000만원을 들여 전남도산림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8회 현장조사를 거쳐 백운산 일원에 대한 산림자원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 희귀식물인 노랑꽃, 히어리, 매미꽃과 구상나무, 삼도하수오, 지리산개별꽃 등과 특산식물 등 관속식물을 수집했으며 전남도산림연구원으로부터 1, 2차에 걸쳐 총 574종 1056점의 식물표

본을 수령해 전시하고 있다.

백운산 일원의 관속식물 분포조사는 나고야 의정서 발효(1993년)에 따라 도내 산림자원의 체계적인 자생지 조사와 희귀 특산식물 등 자원 발굴 및 증식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식물표본 제작과 전시, 책자 발간 등으로 산림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강성 광양시 산림소독과장은 "백운산 산림박물관은 우리나라 최대 학술림이 자리한 광양백운산에 도내에서 가장 많은 식물표본을 수집, 전시하고 있어서 교육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ikjin@gwangnam.co.kr

"나주로 500년 역사 간직한 동백 보러오세요"

금사정 동백축제 29일 개최 사생대회·차 시음 등 다채

500년 역사의 뿌리와 꽃향기를 간직한 나주 금사정 동백나무를 주제로 마을 축제가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29일 왕곡면 송죽리에 위치한 금사정에서 동백축제를 개최한다.

금사정(錦社亭)은 조선 중종 14년인 1519년 조광조 구명 상소를 올렸던 나주 출신 태학관 유생 11인이 낙향해 금강계(錦江契)라는 계를 조직하고 세운 정자이다.

이들은 정치의 비정함을 한탄하고 후일을 기약하며 변치 않는 절개를 상징하는 동백나무를 심었는데 500년이 넘는 오늘날까지 뿌리를 내리고 매년 꽃을 피우고 있다.

이 나무는 높이 6m, 뿌리 근처의 줄기 둘레는 2.4m로 지금까지 조사된 동



나주 왕곡 송죽리에 위치한 '금사정'과 '동백나무'.

백나무 가운데 가장 굵고 크며 수세가 아름답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백나무로 손꼽힌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천연기념물 제515호로 지정됐다.

윤병태 시장은 금사정 동백나무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활용해 마을 관광자원 발굴과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이번 동백 축제를 왕곡면에 제안했다.

왕곡면에선 금강계 후손 대표, 마을 이장 등 금사정 동백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오는 29일 행사를 개최한다.

초등학교생이 참여하는 동백 사생대회, 리(별)꽃 옷놀이, 금사정과 동백나무의 역사적 고찰, 동백차 시음, 동백꽃 압화 등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

순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추가 지원

17일부터 신청...선착순 150명

순천시는 지역 내 1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5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2025년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영업장을 두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150여명을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기준 등급(1~7등급)에 따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에서 80%를

지원받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20%를 추가 지원받아 최대 1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 신청은 순천시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대전머리길 108)를 방문해 현장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근로자 유무, 기준보수 등 급 등을 고려해 분기별 정산 후 지급된다.

지원 요건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순천시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061-752-8590~1), 경제진흥과(061-749-5736)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

고흥, 군민이 행복한 적극행정 추진

고흥군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혁신적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적극행정 정비, 적극행정 보호, 적극행정 우대, 소극행정 회피 등 4대 추진 전략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

발, 인센티브 강화 및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운영,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9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행정과를 전담부서로 지정해 추진된다.

올해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우수 직원에게는 근평 가점, 포상금 상

향, 특별 휴가와 군수 상장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들이 소신껏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지원과 적극행정 정책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감시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해 공직사회의 혁신을 촉진할 방침이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자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